

실속 재테크

달라진 세법 속 '세테크'

재형저축·펀드, 면세·연말정산 혜택

저축, 50만원씩 10년 납입시 230만원 이익
즉시연금 비과세 연말 폐지... 가입 서둘러야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액자 산가는 물론 여유돈이 적은 직장인들도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질...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즉시연금은 연 5%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

13일 "즉시연금 가입을 서두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내년부터 금융소득 3000만원 이상)는 분리과세 상품인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관심을 갖는 등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40만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도 가입한 뒤 10년간 매년 납입 금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인기제품 올리고 비인기 품목은 내려

정부 규제로 억눌려 왔던 각종 가공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업계 일부에서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 인상 관행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칠성사이다와 캡시플라 등 주요 제품 10개의 출고가를 일제히 인상했다.

회사 측은 그러면서 이번 가격 조정으로 전체 매출 기준, 인상 효과는 3%로 최소화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의 가격은 올리고, 안 그래도 낮춰가는 제품의 값은 내려 제품이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는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원 인상했다. 반면 시장 비중이 미미한 '콘스타'와 '별따짜' 값은 60원씩 내렸다. 연평균 매출이 600억~700억원 사이인 새우깡 가격을 10% 넘게 올리며 매출 규모로는 비교가 안되는 2개 제품 가격을 같이 내려 이른바 '물타기'를 한 셈이다. 삼양식품도 최근 라면값을 올리며 삼양라면과 수타면 등 대표 제품값만 올렸고, CJ제일제당도 햇반과 다시다 등 일부 제품만 가격을 조정했다. 이 같은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과업체들은 밀가루 등 원료값 인상을 이유로 지난해 일제히 제품값을 올리면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골목상권 '팍팍' 지원

광주시, 하반기 자금 확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 자금지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광주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긴급 운영자금 규모를 예초 500억원에서 56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된 500억원의 자금 지원이 8월중으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 신한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의 출연하면서 60억원의 자금을 골목상권에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 지원의 대출조건은 상반기와 동일해 1억 5000만원(최고 1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상환 조건이며, 광주시의 3%의 이자보전으로 이용자는 2.3%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오전 11시 강운태 광주시장과 권희선 신한은행 호남본부장,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마음은 벌써 가을...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핸드백 매장에서 가을 분위기를 풍기는 가방을 다양하게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세계경제 부진...수입물가 4개월째 내리막

소비자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가가 넉 달째 떨어지며 안정세다. 하지만 수출물가 역시 석 달째 하락해 수출 전망에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0.8% 하락했다. 전월 대비 수입물가 등락률은 4월 -1.0%, 5월 -1.9%, 6월 -3.6% 등 넉 달째 내림세다.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서도 1.0% 떨어졌다. 6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이다. 계약통화(수출입 거래에 사용하는 기준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6월보다 1.1% 올랐고 작년 동월보다 7.8% 내렸다. 부문별로는 중간재가 컴퓨터·영상음향·화학·1차철강 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보다 1.7% 하락했다. 자

본제는 전월보다 2.0%, 소비재는 3.0% 떨어졌다. 원자재는 농림수산물 물가 하락에도 원유·동광석 등 광산물 가격이 올라 0.7%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경제 부진으로 철강·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 수요가 떨어지는 등 수입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가공식품 가격 '꼼수' 인상

인기제품 올리고 비인기 품목은 내려

정부 규제로 억눌려 왔던 각종 가공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업계 일부에서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 인상 관행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칠성사이다와 캡시플라 등 주요 제품 10개의 출고가를 일제히 인상했다.

회사 측은 그러면서 이번 가격 조정으로 전체 매출 기준, 인상 효과는 3%로 최소화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의 가격은 올리고, 안 그래도 낮춰가는 제품의 값은 내려 제품이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는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원 인상했다. 반면 시장 비중이 미미한 '콘스타'와 '별따짜' 값은 60원씩 내렸다. 연평균 매출이 600억~700억원 사이인 새우깡 가격을 10% 넘게 올리며 매출 규모로는 비교가 안되는 2개 제품 가격을 같이 내려 이른바 '물타기'를 한 셈이다. 삼양식품도 최근 라면값을 올리며 삼양라면과 수타면 등 대표 제품값만 올렸고, CJ제일제당도 햇반과 다시다 등 일부 제품만 가격을 조정했다. 이 같은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과업체들은 밀가루 등 원료값 인상을 이유로 지난해 일제히 제품값을 올리면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1962년 아시아자동차공업사 창립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26>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②

美 윌리스사와 기술·부품 수입 협정

광주상의 건설추진위 공장유치 운동

1차초립공장 건설의 자 확보

1961년 10월 2일 광주시와 북광주·서광주 일대 지역을 아시아자동차공장건설 후보지역으로 합의한 이문환 사장은 11월 들어서부터 유럽과 미국 등지를 순방하며 외자 및 기술도입 교섭에 나섰다. 1962년 1월 미국의 군납차량회사인 윌리스사와 한국군에 지원되는 미국 군사원조 차량의 조립생산 및 군납협정을 체결하고 독일의 뉴욕 주재 아이젠버거사로부터 군납차량 제1차 조립공장 건설의 자 3백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협약을 맺었다.

현지 생산으로 저렴한 우수 노동력 확보와 막대한 완성차 수출의 절약 등 획기적인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차초립공장 건설의 자 확보

이문환 사장의 미 윌리스사와의 협정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됐다. 1962년 1월 29일 정부는 재일 교포 박노정(林魯禎)에게 일본 닛산자동차의 기술제휴사인 새나라자동차공업사의 설립과 아울러 닛산 차 부품의 면세수입권을 허가한 것이다.

브랜드가 '새나라'인 이 자동차는 닛산 블루베드의 조립차로 4기통 1200cc에 5마력, 최대속도 80km의 성능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단 승용차이다. 또 기타 산업의 모체인 경성공업도 3륜 트럭을 생산하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싹이 돋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최

무성 형태의 국제차량(주)에서 생산해온 지프형 '시발'택시가 거리를 누볐고 쌍마승합차 등 크고 작은 중고 부품 조립차 공장들이 있었다. 이들 공장들은 새나라 자동차의 출범을 계기로 전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을 창립한다.

이문환 사장은 1962년 2월에 아시아자동차공업사를 창립했다. 5·16정부는 국내의 자동차공업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자 1962년 5월 31일 자동차공업보호법을 공포, 외국인 완성차 및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국산화율의 향상을 의무화하는 한편으로 규모의 경제를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규제했다.

1962년 상반기는 한국자동차공업의 새로운 격변기였다. 미 윌리스사와 아시아자동차의 군용차 군납협정, 새나라자동차의 창립, 기아산업의 3륜트럭 생산 개시, 전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결성, 자동차공업보호법의 공포 등이 모두 이때 이뤄졌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민의 뜻을 모아 1962년 7월 6일 아시아자동차공장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공장 유치운동에 나섰다.



위중 (연문)

입학문의 ▶ 062-605-1114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Table with columns: 모집단위, 학과, 모집인원 (수시 1차, 수시 2차). Rows include 인문, 사회, 사범, 예능, and 총계.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2012. 8. 20(월) ~ 9. 11(화), 전형일: 2012. 9. 20(목) 수시 2차모집: 원서접수: 2012. 11. 12(월) ~ 16(금), 전형일: 2012. 11. 29(목)

특별전형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 사회복지사,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가족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만학도장학금 등 지급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일반전형

주요일정

- 1 원서접수: 2012. 8. 6(월) - 8. 20(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전형일 대학원명, 학과, 필기 및 면접교사 정보. 3 합격자발표: 2012. 8. 28(화) 오후 2:00 4 등록기간: 2012. 8. 29(수) - 31(금)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Table with columns: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정원. Rows include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대학원 석사, 교육대학원 석사.

학교설립 58주년 (1954~2012)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길 소로 36